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 때 각 과목 선생님들의 반응들이 이처럼 다양했다고 그래요!

국어: 주제도 모르고 쫓쫓쫓...

수학: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음악: 말리지 못할 망정 서로 장단 맞추냐!

미술: 가관이다. 가관이야~

진로담당: 너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양호: 또 다쳤니? 또 다쳤어? 어휴~

국사: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세계사: 너희가 싸운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냐!

가정: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냐?

물리: 힘으로 싸우는 게 전부가 아냐!

생물: 벌레만도 못한 놈들.

한문: 죽마고우 200번씩 싸와.

급식 담당: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오늘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자기가 더 수고했다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 때 우리 주님께서서는 앞서서 살펴본 학교 선생님들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의 논리로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크고자하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하고, 더 잘해야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남을 밟아서라도 더 크고 높아지려고까지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거야...?’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앞뒤 문맥을 짚어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 남자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이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비한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는, 귀신들린 아이도 우리 주님께서 낮게 하셨어요. 이러한 일련의 기적들과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들을 실감한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분위기 상으로도,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곧 예수님의 세상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겠구나 생각한거죠.

####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은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큰사람되는 건 관심없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이라는 형용사는 헬라말로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뜻은 “풍부한, 중요한, 탁월한”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만 메가스가 아니라, 풍부하게 살고 싶은 사람,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서 잠시 포기한 것처럼 보일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풍부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의 대상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영락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누구누구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까? 열 제자... 무슨얘기죠? 네,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열두명인데,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열명의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왜요? 그들 마음 속에도 곧 예수님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두 제자에게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열명 모두가 화를 냈다(마가)/분히 여겼다(마태)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을 보고 불쾌감을 보였던 것은 자기 자신들 역시 야심이 있었음의 반증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한심스러우셨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3년을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몸소 보여주었는데!”라며 화를 내셔도 내실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말해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섬기는 자[디아코노스] 원어적으로는 ‘식탁 아래에서 시종드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waiter/waitress, \*오늘날의 웨이터하고는 또 다르죠!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인격, 이런 것이 없었죠.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운데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란 말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것 또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섬김)를 잘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 해야 합니다. 인생은 섬김을 잘 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잘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44절).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러했는

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이리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목수의 가문에 낫고 초라한 마구간에 귀하신 몸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께서 감질하셔도 충분히 되실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옳로써 섬기시러 이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 사람인, 동방의 세 박사들의 축하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축하 파티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 종들이나 하는, 올들이 맡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섬김을 받아도 부족하실 분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마탄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영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 감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옳로써 섬기길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천국의 모양을 그레도 좀 닮은 곳이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가정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강한 자가/부모가 약한자/자녀를 섬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죠. 어디니 할 것 없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눈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반딧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 찔찔 매잖아요. ㅎㅎ 찔찔 매지 않아도, 기쁨으로

돌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직분이 올라갈 수록 권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서 그래도 천국의 모습을 가장 닮았다고 표현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다는 건, 약자가 하자는 대로 다 오나 오나하는게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아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감질하는 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감입니다. 세례요한인 이땅에서 그의 마지막이 다가올 즈음에, 엄청난 말을 했죠. 요한복음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직역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더욱 커지셔야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More of Jesus, less of me).

매년 방학이 되면 어느 여고 중창단이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연주 활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오래 전 중창단이 인솔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고등학교, 교회, 대학들을 순방하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원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차를 타야 할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차 있는 데로 뛰어가 서로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 날 동행했던 장로님 한 분이 지켜보고 있다가 인솔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학생들은 차를 탈 때마다 앞을 다투어 뛰어감니까?"

인솔자의 대답은 자동차의 좌석이 열두 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명은 차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데 서로 먼저 타서 엎드리기 위해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장로님이 직접 차 있는 데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뛰어간 두 여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날 그 장로님은 그 중창단을 위하여 15인승 봉고차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드리고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닌 위치나 소유나 입장을 내세워 앞드리지 못하는 사  
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  
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몸소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  
니하시고/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섬길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네 삶은 내게 맡기겠느냐?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 때,  
저희들도 주저없이 선뜻 대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  
고, 예수님과 그 분의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시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홍하**  
**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가고, 또한 성경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